

대인시장·예술의 거리 วัฒนธรรม예술 거점으로

광주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인시장
길거리 버블쇼…가족대상 확대
외국인 노동자 특화공간
프린지페스티벌 공연

예술의 거리
궁동유람·예술상점 등
분기별 체험 프로그램

양림동·문화전당 연계
‘전라도 방문의 해’ 프로그램
2월까지 보조사업자 공모

광주시가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아시아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주시는 23일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토대로 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인 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창작과 유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야시장 별장 프로그램과 궁동 예술체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 대인예술시장의 경우 길거리 버블쇼, 마술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놀이문화(공연 등)를 펼칠 수 있는 특화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문화전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프린지페스티벌의 일부 공연 프로그램을 대인예술시장 등에서도 공연할 방침이다. 궁동 예술의 거리에서는 궁동유람, 장인에게 배운다, 예술상점 등 40여 개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만나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분기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진행,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밖에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궁동 예술의 거리, 대인 예술시장, 종외공원 일대를 연계해 ‘2018 전라도 방문의 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는 오는 2월까지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가 마무리되고 최종 계획이 확정되면 대인예술시장은 3월, 궁동 예술의 거리는 4월부터 시민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朴 公모’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효성 비자금 의혹 무혐의…유상감자 불구속 기소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가장 큰 의혹으로 봤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흥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 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얻게하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나 흥씨에 대해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 조 회장이 지난 17일 소환조사

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인베스트먼트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셀프 배임’인 점을 근거로 불구속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南 선발대, 금강산·마식령스키장 점검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등을 위한 시설점검차 방북한 우리측 선발대 12명이 23일 금강산 지역에 도착해 본격적인 점검 일정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금강산 1차 점검을 마치고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해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을 점검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선발대가) 금강산에서 1차 점검을 마치고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했다”며 “마식령호텔에 직통전화를 설치해 남측 상황실과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두 종목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식령스키장에서 두 종목 모두 훈련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훈련에 남북 모두 국가대표가 참가하는 건 아니다.

그는 또 우리측 선발대가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갈마비행장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공편 문자가 2명 갖고 운항이 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시설이 (오래 사용을 안해) 우려가 있는데 점검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공연이라든지 항공기 운항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측 선발대는 이날 마식령호텔에서 묵고 24일 마식령스키장과 갈마비행장을 둘러본 뒤 같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지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귀환 경로에 있는 금강산 지역에 들러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5일 오후 5시 30분께 동해선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경의선 육로로 방남해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을 점검한다. /연합뉴스

전남대 가족기업, 4차 산업 핵심 부품 인텔에 납품

전남대학교 교수진과 졸업생 등이 설립한 ㈜피피아이가 독자 개발한 100기가급 광송수신기용 광반도체 핵심칩(DEMUX 모듈)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주)인텔에 납품하게 됐다.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주)피피아이는 최근 인텔과 광송수신기용 DEMUX 모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제품은 피피아이의 독보적 기술인 초고속 대용량 광집적회로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피피아이가 DEMUX 모듈을 납품함으로써 광주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제품 개발에는 2014년부터 시작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의 전남대 정밀박형소재 기술인력 양성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인력 공동 육성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피아이는 전남대 교수진과 졸업생이 주축이 돼 1999년 설립된 회사로 광주 첨단지구 1호 기업지정된 기업이다. 김진봉(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피피아 대표이사는 “기업의 성장에 전남대 졸업생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면서 “인텔사 납품을 계기로 계기로 광대데이터 전송 및 통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화폐는 사용 중지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등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는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야·전·답·바로 삽니다!

전국·땅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 물건
▶투자금 3억원 이상
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점포임대”

■ 광주 북구 매곡동 214-4번지 (대화아파트 상가)

■ 1층,5평,버스승강장 바로앞, 장소좋은

■ 보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 현, 옷가게, 타업종 가능

■ 비/권 - 1350만원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장성 북이면 장성면 10974㎡(3320평) 5억9천
•완도 악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단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창송 수문해수욕장 판선 등 적합 2346㎡ 분할가능 평당 70만원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장성 북이면 백양봉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향중음 13층 2억5천
•월산동 소방도로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무안 현경 평산리 바닷가 전 4542㎡ 8300만원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백운동 빌라 대지 314㎡ 건물 527㎡ 매도 7억5천
•고흥군 동일면 판선 땅 7061㎡ 판선 267㎡ 8억2천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원 13억2천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유동 삼상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영암 월출산 일 맨션 땅 1578㎡ 경관중음 4억6천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주월동 무등산정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 매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사동 제일파코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
•장성 백안지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중음 2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1억, 월745만) 매17,5억원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24억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토 지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광산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답 2,240㎡ 매 4억6천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